

사설

조계사 발전의 청사진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심사찰이다. 이는 경내에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해 있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서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계사가 그동안 우리 나라 불교의 신화를 견인하는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로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포교와 신화의 1번지였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그동안 조계사는 그 상징성에 비해 운영이나 관리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느낌이다. '주인 없는 집'이라는 인식 때문에 잘 자체를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분위기가 부족했다. 특히 중산불화가 재연될 때마다 조계사는 가장 참담한 싸움터가 됨으로써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

최근 열린 '조계사 발전방향 공청회'는 이같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계사의 명모를 일신시킬 것인가를 논의한 자리여서 관심을 끈다. 특히 사부대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체제 도입으로 조계사를 진정한 불자공동체의 중심사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성공 여부를 떠나 매우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원래 이 제도는 개혁종단이 사찰체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까지 마련했지만 실행이 안되던 사안이었다. 오래된 관행과 부분적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터에 앞으로 조계사가 이 제도를 선구적으로 시행한다면 다른 사찰들의 운영방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돼야 할 부분이 조계사 도량정비에 관한 문제다. 현재 조계사는 도량이 정비되지 않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사찰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비불자가 찾아왔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간다. 다행한 것은 10여년 동안 매입한 부지가 2천여평이 넘었으므로 이제는 종합계획을 세

우고 도량정비를 할 때가 됐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졸속하게 추진해서는 안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조계사의 상징성에 걸맞는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심사찰'이란 개념이다. 마침 조계종도 새해에는 불교종합회관 착수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반드시 후회없는 대작 불사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포교활동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포교행태나 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도 하다. 조계사가 포교일번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편이라는 이름의 비불교적 작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임시백일기도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조계사가 할 일인지, 입춘부적을 파는 것이 정당한 포교방편인지는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포교란 곧 '정법선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물놀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 못지 않게 어떻게 해야 문화적 세련도를 높이고 사찰의 경건성을 확보할 것인가도 신중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거들 말하지만 조계사는 범연한 사찰이 아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중심사찰이며 그 자체가 한국불교의 상징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조계사가 제대로 천도교 기독교를 제대로 선다는 뜻과도 통한다. 그러므로 조계사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년 또는 100년 뒤의 조계사를 상상하며 밑그림을 그어야 한다. 결코 몇 년 뒤에 열어야 할 집을 가건물 짓듯해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사람들의 진지한 연구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통국대 경주문화 테크노파크 추진

경주소재 대학-중소기업청 연계

유·무형문화재 망라 문화인프라 구축

천년고도 경주에 국내 최초의 문화테크노파크 설립이 추진중이다. 통국대(총장 송석구) 경주캠퍼스는 산·학·관 협동체제의 문화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경주대, 위덕대, 서라벌대 등 경주지역 대학과 경주시, 중소기업청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4일 발표했다.

통국대는 건립에 앞서 올해 시예산 2억5천만원을 포함, 모두 4억5천만원을 들여 연건료 5백평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경주캠퍼스에 건립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문화테크노파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2년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 모두가 가치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복안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전문성과 종합성을 띤 테크노파크안에서 경주가 가진 천혜의

문화유산과 대학의 우수한 두뇌를 접목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화테크노파크에는 각종 관광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비롯 민속공예촌, 박물관, 연구소 등이 들어서며 영상채, 증강현실 등을 시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마련된다. 유·무형의 문화재를 망라한 종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국대 경주캠퍼스는 단지조성과 관련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단지나 민속공예촌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통국대 지역정책연구소 황은식소장은 "현재 산업자원부는 재단법인 형태로 6개의 테크노파크를 추진중이나 문화산업을 이끌 테크노파크는 없다"며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전망이 밝은 만큼 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buddhopia.com)



8일 열린 한일불교교류협 제19차 정기총회.

한일불교교류대회 5월 직지사서

교류협 8일 정총 결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이사장 홍파)는 8일 오전 11시 하림사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김천 직지사서 제2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갖기로 했다. 교류협은 이번 대회를 세미나 형식에서 한국불교문화의 체질과 역사기행 등으로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0월에는 영산대재와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일본에서 개최하고 한일불교문화교

류협 8일 정총 결의

류20주년 기념 화보집도 발간기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은 53명의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이날 총회에서 98년 결산내역을 승인하고 올 사업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교류협은 또 명예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98년 12월 14일)을 추대했으며 지하스님(전통승려사)과 문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감사에는 성경스님과 김성기 이사를 유임시켰다.

임연태 기자

남-북 종교지도자 日 도쿄서 만난다

3월13일부터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종교인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만난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조선종교인협의회(KCR 회장 장재인)가 공동 주최하는 '종교인 도쿄 평화모임'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 한국측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6개 종교 대표 14명과 참관인 등 3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또 북한측에서는 불교 천주교 천도교 기독교를 대표한 종교인 4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측 및 아시아 평화를 위한 자선공연, 공동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이 대회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는

한국측 강원목사가 기초 강연을 하고 한국 일본 북한의 학자가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고산스님은 9일 회장직을 수락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행사교육원 3월24일 직지사서

(ytlm@buddhopia.com)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9일 오후 1시 파계사에서 회의를 갖고 3월 24일부터 직지사서 행사교육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계단위는 이에 따라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을 사미계 수계사로 정하고 나머지 중사는 계단위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임연태 기자

고산 총무원장 상대 제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서울 민사지법 기각판결

정화개혁회의측 율탄 정우 성문스님이 1월20일 고산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는 4일 "피신청인(고산)은 98년 12월29일 제2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후 30일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아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1월25일 정영스님 신청),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1월26일 정영스님 신청), '중앙총회의원 자격상실확인'(1월13일 율탄·정영스님 신청), '퇴거단행 및 영장부해금지가처분 항소'(98년 12월14일 율탄·정우·성문스님 신청) 등 4건이 남았다. 임연태 기자

'종단운영 순응' 전면부정 율하스님 8일 해명서 발표

율하스님은 '종단운영 방침에 순응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1월 26일자 친필 성명서를 전면 부정하는 해명서를 8일 발표했다. 율하스님은 "종단이 통합되어 일원화된 종단에 순응한다는 말이 허풍을 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밝혔다.

정성운 기자

포교원의 군승단 지원비 4천4백만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천만원은 논산현충소 수계지원비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 여력이 일고 있다.

군승단은 "사무실 운영과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조정을 포교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포교원은 군승단 운영회의에서 재조정을 결의하면 포교원이 승낙하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을 조정할 방침이다.

(swjung@buddhopia.com)

"군법당 건립예산 무원칙"

군승단, 조계종에 재검토 요청...포교원 실사키로

군법당 건립 지원 예산이 원칙이 없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9일 포교원 업무보고에서 "법당 건립을 위한 종단의 예산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병교육대 등 교육기관 중심으로 배정해줄 것"을 포교원에 건의했다.

포교원은 당초 올해 법당 건립 지원비 2억4천만원을 육군특수전학교 1억원, 3사단신병교육대 7천만원, 7포병여단 7천만원으로 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종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없던 해병2사단 교육관 재건축 지원비로 3사단과 7포병여단 예산에서 2천만원씩 삭감해 4천만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병2사단 한관회사는 "한스님이 이곳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안

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효율성있는 군포교를 위해 법당 건립 지원비를 장·사병 배출기관에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병2사단 실사를 통해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집행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편향위 '웹블랙서' 발간키로 공동위원장에 현진-원혜스님 추대

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임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책위 실무자들은 10일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스님을 방문,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현진스님은 송강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공동위원장을 수락했다. 대책위는 또 원혜스님(봉은사 주지)을 공동위원장에 추대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 주요사업으로 조계종사태로 중

단됐던 '종교편향 및 웹블랙서'를 발족 1주년에 맞춰 4월경 발간키로 하는 한편 종교편향 및 웹블랙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률 대응 매뉴얼'을 하반기중에 배포키로 했다.

지난 해 4월 발족한 종교편향 대책위에는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웹블랙건과 공공기관 종교편향 사례 접수전화(02-7340-108)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현대 불교 뉴스

현대 불교 뉴스

737-8881

일만이천번 잘 살펴보고...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60명 ■통신40명	· 최중학교 졸업 증명서1통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40명 ■통신20명	· 반방합관 사진 5매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3 원로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준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7.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취득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교육부 학력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징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25일까지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중국최고국립한의과대학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7. 모집학과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의예과	5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양생강박학과	5년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약학과	4년	· 최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제약학과	4년	· 최중학교 성적증명서 1통
약리학	5년	· 건강진단서 1통
침구학과	5년	· 보증서 1통
추나학과	3년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간호학과	2년	·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의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